

CHAIRPERSON NOTE

체어퍼슨노트

2009.06.12 (통권252호)

경제 이슈

- 국제 원유가격 급등 및 미국 국채 수익률 상승
- 국내 금융자산잔액 증가

경영 노트

- 어려울 때 신규 투자하는 기업

사회 트렌드

- 5만 원권 효과는?

차이나 리포트

- 5월 중국경제 동향

저널 브리프

- ‘밀레니엄 세대’가 몰려온다

洗心錄

- 즐거운 마음으로 끝까지 일하기

□ 국제 원유가격 급등 및 미국 국채 수익률 상승

- 원유가격 상승과 미국 국채 수익률 상승이 전년말 이후 동조 현상을 보임으로써 글로벌 경제 불안 요인으로 작용
 - 원유가격 : 두바이 현물 가격은 2009년 6월 11일에 배럴당 71.19달러로 2008년 12월 31일의 36.45 대비 약 2배 상승, 서부텍사스산은 72.76달러로 '08년 12월 22일 31.12 대비 2배 이상 상승
 - 미국 국채(10년물) : 수익률이 2008년 12월 30일에 2.11%에서 2009년 6월 11일에 3.88%로 1.77%p나 상승
 - 원유가격 급등 및 국채 수익률 상승 배경 : 원유는 달러화 약세로 인한 투기자본 유입과 글로벌 원유 수요 증가가 원인이고 미국 재정적자 누적과 달러화 가치 하락이 국채 수익률 상승의 원인으로 작용
- 특히, 원유가격 급등과 미국 국채 수익률 상승이 상호 원인으로 작용함으로써 투기자본의 이동, 글로벌 금융 시장 불안 등 글로벌 경기회복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큼

□ 국내 금융자산잔액 증가

- 한국은행(12일)에 따르면 국내 총 금융자산총액은 전년말 대비 증가
 - 금융자산총액 : 2009년 3월말 현재 9,080조 3,000억 원으로 전년말 대비 4.8% 증가하였고 금융연관비율(금융자산/명목GNI)은 8.85배로 전년말 8.41배에 비해 상승
 - 개인 부문 : 2009년 3월말 현재 금융자산은 1,729조 7,000억 원으로 전년말 대비 52조 4,000억 원 증가, 금융자산/부채 비율은 2.16배로 전년말 2.16배보다 상승
 - 기업 부문 : 2009년 3월말 현재 금융자산은 882조 4,000억 원으로 전년말 대비 8.7% 증가, 금융부채는 1,207조 8,000억 원으로 4.6% 증가
- 한편, 2009년 1/4분기 중 금융부문의 자금조달 규모는 전분기 69조 9,000억 원 감소에서 95조 870억 원 증가로 전환되었으나 기업부문의 자금부족 규모는 18조 4,000억 원으로 전분기 9조 2,000억 원보다 확대

□ 어려울 때 신규 투자하는 기업*

- 세계적인 불황으로 대부분이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통한 생존전략을 펼치는 가운데 몇몇 기업들은 오히려 신규 사업 투자를 확대하고 있음
 - 자금 유동성이 풍부한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경기 회복기를 대비한 신규 사업의 투자를 확대하고 있음
 - 이러한 신규 사업은 정부 추진 사업인 ‘신재생에너지’ 등의 녹색성장산업과 세계 시장 개척 등이 주요 테마로 등장하고 있음

■ 주요 기업들의 신규 및 설비 투자 분야

- 업종별 주요 기업 59개 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기업이 녹색성장과 관련된 에너지 사업이나 태양광, LED, 헬스케어 관련 사업에 진출하거나 진출 계획에 있음

분야	투자비율	주요 투자 기업들
신재생에너지	36%	삼성전자(태양전지), SK에너지(전기차용2차전지) LG전자(태양광), 현대중공업(풍력,태양광), 한화석유화학(태양전지), 삼성중공업(풍력발전)
LED	14%	삼성LED(LED), 현대모비스(전자부품), LG전자(LED조명), 주성엔지니어링(LED,OLED)
디스플레이	15%	삼영전자(디스플레이), 삼보(디스플레이)
헬스케어 및 바이오	12%	삼성테크윈(의료기), CJ제일제당(제약), LG생명과학(바이오), 하나투어(의료관광)
기타	23%	글로벌(해상운송), 농심(건강기능식품), 롯데칠성(주류), 현대제철(고로), KT(IT융합)

- 기업은 신규 투자에 있어 정부정책 방향과 함께 기술 시장 발전, 기존 사업과의 관련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임
 - 또한 기술적 역량이나 연구개발에 대한 청사진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해야 하며, 기존 비즈니스 모델과의 시너지 효과도 고려해야 함

* “대기업의 신규 사업들”(매경Economy, 2009.6.17) 참조

□ 5만 원권 효과는?*

- 1973년 1만 원권이 발행된 이후 36년 만에 새 고액권 5만 원권이 오는 6월 23일 등장
 - 고액권 발행으로 시장에서는 소비 증가를 기대하고 있음
 - 가령 와인업계에서는 기존에는 1~3만 원대 와인 소비가 많았지만, 이제 4만 원대 또는 싼 와인을 2병씩 사는 고객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긍정적 효과) 한국은행은 5만 원권 발행으로 불필요한 비용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10만 원권 자기앞수표의 제조 및 취급 비용 2,800억 원, 1만 원권 수요 감소로 인한 화폐 제조 및 관리 비용 400억 원 등 연간 약 3,200억 원의 비용이 줄 것으로 추산
 - 5만 원권 발행으로 10만 원권 수표 수요가 40% 이상 줄어들 것으로 전망
 - 소비자들이 휴대해야 할 지폐 장수가 크게 줄고 현금 입출 및 계산에 걸리는 시간도 단축될 것
 - 직접적인 이익을 보는 곳은 현금입출금기(ATM) 제조업체로서, 벌써 주가가 100% 이상 상승

- (우려되는 부작용) 우려되는 부작용도 많음
 - 우선 5만 원권이 5천 원권보다 약간 크지만 색깔이 비슷해 헷갈릴 가능성이 높음
 - 불법자금의 단위가 커질 수 있음. 1만 원권은 사과상자에 5억 원, 007가방에 1억 원이 들어갔지만, 5만 원권을 사용하면 사과상자에는 25억 원, 007가방에는 5억 원을 넣을 수 있음
 - 물가상승 압력이 커질 수 있음. 이미 일부 소비재 업체들은 4만 원대 물건 가격을 5만 원 가까이로 높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부조금, 세뱃돈, 봉사료 등의 단위도 커질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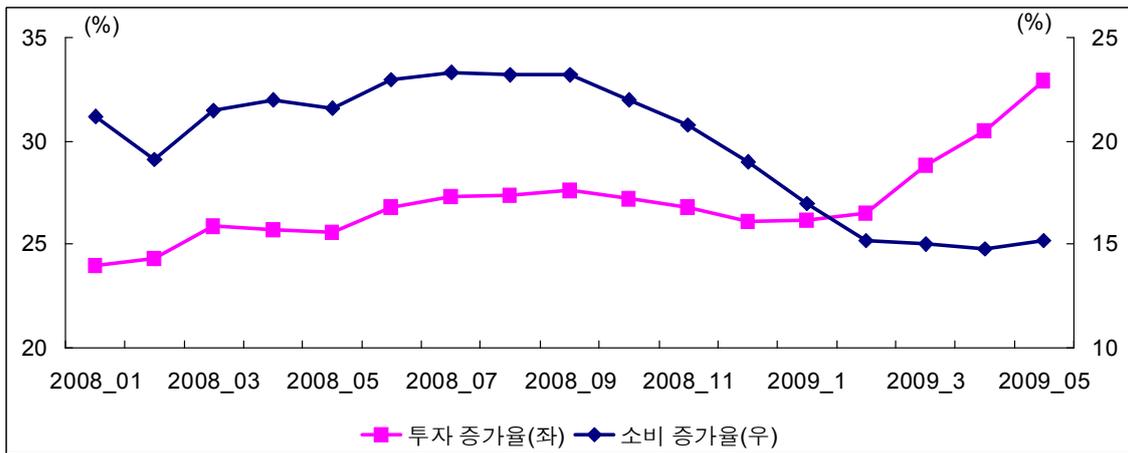
* “5만원권 효과, 설레는 경제”(동아일보, 2009.6.12) 참조

□ 5월 중국경제 동향

■ (개요) 6월 12일 중국 국가통계국은 5월 주요 경제지표를 발표

- 전반적으로 산업생산이 5개 월 연속 증가세를 보인 가운데 투자와 소비 증가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유동성 또한 충분한 편임
- 그러나 대외 부문의 부진이 지속되고 있으며, 물가도 진일보 악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중국 고정자산투자 증가율과 소비 증가율 추이 >



자료 : 중국 국가통계국.

■ (투자 급증) 5월 중국 고정자산투자 증가율은 4월에 이어 2개월 연속 30% 대를 기록

- 5월 고정자산투자 증가율은 32.9%를 기록함으로써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
- 이는 중국 정부의 강력한 재정확대 정책에 힘입은 것으로 금융기관의 대출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정부의 SOC 투자가 급증했기 때문
- 2007년까지 중국의 연간 고정자산투자 증가율은 30%를 기록함으로써 고속 경제성장을 이끄는 주요 동력이었음

- (소비 증가세 지속) 5월 소비는 전월에 비해 소폭 증가세로 다시 반전
 - 5월 중국 소비재판매 증가율은 15.2%로, 전월 대비 0.4%p 증가, 작년 8월 이후 처음으로 반등
 - 중국의 소비 증가는 정부의 소비촉진책 실시에 따른 영향이 크며, 특히 자동차와 주택 판매가 4월에 이어 증가세를 시현한 것에 기인

- (수출입 감소세 지속)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가운데 중국의 수출입은 감소세 지속
 - 5월 중국의 대외 수출과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6.4%와 25.2% 감소하여 큰 폭의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음
 - 특히 수출은 작년 11월 이후 감소가 시작된 이래 최대 감소폭을 보였으며, 수입은 감소세가 다소 축소되는 양상을 보임

- (산업생산 증가) 5월 중국의 산업생산은 3월과 4월에 이어 증가세 지속
 - 5월 중국의 산업생산은 전년 동기대비 8.9% 증가하여 2월 이후 3개월 연속 호전되고 있음
 - 특히 광둥(广东)과 절강(浙江) 등 연해지역의 산업생산 회복세가 뚜렷하며, 경공업보다는 중공업 생산이 호조

- (물가 하락세 지속) 5월 중국의 물가는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4월에 비해 하락 폭이 다소 완화되는 양상을 보임
 - 5월 중국의 소비자물가와 생산자물가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4%와 7.2% 하락하여 4월에 비해서는 하락폭이 소폭 완화된 것임
 - 중국 소비는 민간 부문보다는 정부 소비가 주도하고 있어 소비 증가에도 불구하고 물가는 하락세를 보임
 - 특히 생산자물가의 지속적인 하락은 2/4분기 기업 실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대량 파산, 해고 사태가 예상됨

□ ‘밀레니엄 세대’가 몰려온다*

- ‘밀레니엄 세대’란 1980년 이후 출생하여 2000년대 사회에 진출하는 세대로서, 이들은 ‘디지털’, ‘개방적’, ‘양방향소통’ 등 기존 세대와 다른 성장배경과 가치관을 지님
 - 기업 내에서 이들 밀레니엄 세대가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새로운 조직 관리 방안이 요청되고 있음
- 밀레니엄 세대를 고려한 조직관리 방안

구 분	내 용
밀레니엄 세대의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방적인 자기희생을 거부하고 일과 여가의 균형을 중요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거의 성과보상기준을 강요하기보다는 여가와 승진을 활용한 새로운 동기부여방안을 마련해야 함 · 단계별 목표를 추구하는 소규모 업무 활동에 친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무교육 및 프로젝트 수행 시 이러한 특성을 고려해야함 · 새로운 기술에 대한 높은 적응력 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세대들의 사적 네트워크를 지원하는 기업 인트라넷, 메일 서비스 등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 · 인터넷을 통한 다양한 정보공유 활동에 적극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료관계에서 급여정보, 업무까지 각종 정보를 공유함에 따라 조직의 투명성을 높여야 함
새로운 기업문화를 위한 제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세대를 아우르는 유연한 조직문화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베이비부머, X세대, 밀레니엄 세대를 아우르는 문화가 필요 · 기업 내부의 온·오프라인 네트워크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밀레니엄 세대가 조직에 자연스럽게 동화될 수 있도록 내부의 온·오프라인 네트워크를 활성화 · 동기부여를 위한 직무이동 프로그램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지만 잦은 보상을 선호하는 특성을 고려한 인사시스템을 구축 · 직무수행에 있어 개인중심에서 소그룹활동으로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규모 팀을 구성하여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도록 배려

자료: 모니터그룹, ‘변화를 향한 촉매제-밀레니엄 세대가 가져온 기업문화 충격’.

- 기업은 모든 세대가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기업문화를 조성하고 이들의 경력발전에 따른 조직개편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함

* “신세대·원세대 소통하게...조직관리 ABC 다시 써라”(한국경제, 2009.6.10) 참조

□ 즐거운 마음으로 끝까지 일하기

우리는 누구나 개인적으로 어려움에 직면한다. 육체적으로 아픈 사람도 있고 정신적으로 피곤한 일도 산적해 있다. 또한 사회적으로 경제 상황이 안 좋은 때는 그 스트레스가 점점 올라가게 된다. 이러한 스트레스에 의연하게 대처하지 못하면 필요 이상으로 심하게 반응하여 우리의 소중한 정신적 에너지가 낭비 되게 된다. 이케가야 유지는 “착각하는 뇌”라는 책에서 “스트레스 해소법을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스트레스를 당당히 받아들여려는 마음가짐과 언제든 해소할 수 있다는 믿음도 필요하다”라고 하였다. 우리는 개인적 난관과 스트레스에서도 해야 할 일이 있고 목적이 있다.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는 기반을 잡을 때까지 밀고 나갈 수 있는 끈기가 필요하다. 안젤름 그린은 “머물지 말고 흘러라”라는 책에서 다음과 말하였다.

스스로 선택한 곳에서
뿌리를 내릴 때까지 어떤 일이든 지속하십시오.
그런 당신의 성장을 꼭 보고 싶습니다.

어려운 일에 직면하였을 때 어렵고 힘들겠지만 일의 기반을 잡을 때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단 일이 기반을 잡으면 순탄해질 것이다. 그 이후에는 일로 인한 성과는 대단히 크게 된다. 어렵고 힘든 일을 기반을 잡을 때까지 추진하는 과정에서 직면한 스트레스를 당당히 받아들이고 해소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중요하다. 우리의 인생은 한 번밖에 없다고 하지요 순간순간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더불어 주위의 가족, 친구들과 서로 돕고 도우면 산다는 것은 당연하지만 소중한 진리인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즐거움을 주며 즐거움을 받으며 어려운 시기에 즐겁게 사는 것이 필요하다.

“ 인간이 경계해야 할 가장 위험한 적은 무관심과 완고함이다. ”

- 프랭크 타이거 -